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해 퇴역군인 자살자 관련 정보를 추적 및 보고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02036/A.03237)에 따라, 퇴역군인 자살을 추적하여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할 방법 마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예방 전략 개선을 위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퇴역군인 자살을 추적하는 방법을 마련할 법안(S.02036/A.03237)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지만, 베트남에서 복무한 제 삼촌을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따뜻한 가정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뉴욕은 우리의 영웅을 돌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 개입 등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군인을 도울 것입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검사관, 법의학자는 퇴역군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건을 보훈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자문에 따라 진행되며, 자살로 사망한 퇴역군인의 수, 최근 5년 간 퇴역군인 자살 추세, 카운티, 주, 전국별 퇴역군인 자살률 비교 등을 포함합니다. 첫 보고서는 2024년 6월 공개 예정이며, 이후 보고서는 3년마다 공개됩니다.

국방부(Pentagon)의 연례 자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의 자살은 2018년 13%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1월 뉴욕주 자살 예방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Suicide Prevention Task Force)가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4월, 태스크포스는 퇴역군인 자살률이 비퇴역군인에 비해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및 주정부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은 정보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여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법안은 자살 데이터 추적 방식을 개선하여 퇴역군인의 자살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John E. Brook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퇴역군인 자살률이 퇴역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고된 내용이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Hochul 주지사는 군인들의 정신 및 감정적인 고통 문제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저는 이번 법안을 상원에서 추진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 전역의 퇴역군인들의 웰빙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Pamela J. Hunt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정부로서 우리는 언제나 퇴역군인을 최선으로 살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퇴역군인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필요에 따라 진화하는 가운데, 계속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퇴역군인의 자살률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퇴역군인의 자살을 보훈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퇴역군인 자살 관련 접근성을 보호하고 예방 전략에 활용할 것입니다. 법안에 서명하여 도움이 필요한 퇴역군인을 돕기 위한 헌신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